

2014년 5월 12일

40대 초 직장맘의 월요일 아침 풍경

지난 주 황금연휴에 경기도 양주 스톤밸리로 2박3일 가족 캠핑을 다녀와서 잔뜩 쌓인 빨래도 못하고 청소도 한 주 못했더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니라 오늘 새벽까지 빨래에 청소에 4시가 거의 되어 잠자리에 들었다.@@

월요일 아침은 항상 더 피곤하고 정신없는데 오늘은 한층 더한 것 같다.

8시가 다 되어가는데 두 딸은 아직도 잠에 빠져 삼매경이다... 난 오늘 아침도 두 딸들 깨우는 소리로 시작한다.

학교 후문을 통과하면서 둘째 딸 정서의 감기약을 안 챙긴 것이 생각났으나 감기가 거의 끝물이며 애써 모른척하며 운동장을 가로질러 거의 현관 앞에 다다를 무렵...아차... 큰 딸 실내화 주머니를 집에 놓고 온 것이 생각났다. "어쩌지...?" 혼자말처럼 잠시 중얼거리는데 큰딸 윤서가 사태 파악을 하고서는 "그냥 양말신고 하루종일 다녀야지..."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바람에 정신차리고 우선 등교와 등원을 시키고 나서 빠른 걸음으로 다시 집으로 와서 실내화주머니와 약을 챙겨서 다시 학교 운동장을 가로질러 2학년 2반 교실 앞...

월요일이라 교장님 훈화말씀을 조용히 앉아 모니터로 보고 있는 터라 '똑똑'하고 들어가기 망설여져 교실 뒷문을 서성이는데 때마침 윤서네 반 친구 연재가 5학년 5반 교실에 선생님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이라며 인사를 하는데 어찌나 반갑던 지 ㅎㅎ

실내화 주머니를 맡기고 돌아서려는데 우리 윤서 달려나와 때아닌 어리광 ㅋ

안아주고 잘 타일러서 교실로 들여보내고 다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이제 나도 회사 갈 준비 시작~! 윤서 1학년 입학하고 야심차게 나도 회사 갈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함께 집을 나와 등교시키고 바로 출근했었는데... 정말 딱 일주일 하고는 지금처럼 초췌한 홈웨어 차림에 민낯으로 등교시키고 다시 집으로 와서 그때부터 출근 준비하기 시작한다.

숙련되고 빠른 손놀림으로 화장하고 옷 입고...택시타고 날라서 10분만에 여의도 사무실에 도착~!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체크하고 시계를 보니 10시 5분 전...

건물 1층 파스쿠치에서 오전 10시까지만 아메리카노 30% 할인이 되는 터라 또 부랴부랴 엘리베이터를 타고 빠른 걸음으로 가서 아이스커피 한잔 사 들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한 모금 들이키고 나니 이제 정신이 좀 드는 듯...

오늘은 아침에 학교를 두 번씩이나 다녀와서 그런 건지, 새벽까지 밀린 가사일을 하느라 잠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님 긴 연휴 뒤 증후군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너무 피곤한 월요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래도 사무실 내 자리 컴퓨터 앞에 앉으니 차분해지고 안정감이 느껴지는 듯...
자~ 아이스커피 원샷하고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 볼까나~?!